

## 윤 대통령, 순천시 애니메이션 산업 직접 챙기겠다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8개소 신규 지정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와 환영,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 탄력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을 앞두고 참석한 만찬에서 "정원박람회 관람객 800만 명 돌파는 대단하다"라며,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부 부처에 지시하겠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순천시 애니메이션 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애니메이션 산업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스토리와 창의력이 핵심이자 골목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친환경적으로 창·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자연·역사·문화 등 도시 전체가 창작의 배경이 되는 생태수도 순천시의 여건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애니메이션이 창작 디렉팅과 3D과학기술이 중요한 분야라서 AI기술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미래 사회에서 창의성에 기반한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에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엔터테인먼트 및 35여 개의 제작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웹툰, 음악, 영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 분야로의

확장까지 고려한 산업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디즈니랜드 육성을 위해 퍼레이드, 문화행사,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스튜디오 및 체험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등 전후방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2021년 콘텐츠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결과 반도체산업이 2.1명 고용창출을 할 때 콘텐츠산업은 14명으로 7배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시는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선정과 연계해 미래인재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과학기술 발전과 시대흐름을 놓치지 않고, 남해안 벨트 중심도시로써 창의력과 지혜로 경제의 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표준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문화콘텐츠산업 융역을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기업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선도마을 육성 성공모델 구축

전라남도는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고 지역 특색을 살린 선도마을을 주민 소득 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성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8곳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유기농 생태마을은 ▲곡성 반송마을 ▲구례 하신마을 ▲장흥 지북마을 ▲해남 월교마을 ▲영암 오산마을 ▲영암 신마산마을 ▲함평 신여마을 ▲영광 한시랑마을이다.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하기 위해선 10호 이상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마을 중 친환경 인증 10ha 이상, 유기농 인증 면적이 친환경 농산물의 30% 이상으로 구성원의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8월까지 신청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곡성 반송마을은 벼, 토란, 고사리를 재배하고 전체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는 마을로 인증 면적이 10.1ha다. 주위에 대나무숲과 하천이 있고 생태환경이 잘 보존돼 있으며, 죽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구례 하신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77%(20ha)로 2027년까지 유기농 인증을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촌으로 마을 앞산에 학과 두루미 서식지가 있고 느티나무 군락지가 형성돼 있다.

장흥 지북마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82%(48.6ha)로 작목 품종이 녹차, 벼, 라이그라스, 조, 피 등 다양하다.

전국 유일 청태전 자연생태체험마을로 야생차 발 등을 이용한 생태체험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해남 월교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34ha로 벼, 호박, 옥수수, 황칠, 비트, 토마토, 대파, 무, 배추 등 품목이 다양하다. 주변에 고라니 등 20여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고천암 철새 도래지에 위치해 생태환경이 우수하다.

영암 오산마을은 우렁이농법으로 벼, 찰벼를 재배하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26.5ha)을 실천하는 마을로, 성묘산 성터, 모산재 등과 같은 문화재가 있다. 친환경 농촌체험 발굴 등 마을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지가 강하다.

영암 신마산마을은 전체 22개 농가 중 20개 농가가 친환경 인증(24.2ha)을 받고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가는 마을이다. 유채꽃을 활용한 관광 등 방문객 유입을 위한 축제도 계획 중이다.

함평 신여마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84%(41.3ha)로 작목 품종도 다양하다. 동편에 축조된 동정제는 봄에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둘레길로 이뤄져 환경보전은 물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관광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영광 한시랑마을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100%다. 106.3ha가 유기농 인증으로 전국 최고 단일 들녘 친환경 벼 재배 집적화단지다. 원불교 영산 성지 및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로 마을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이다.

박종배/기자

## 경북도 "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 대안 검토중"

MEMPHIS, HONGKONG 등 세계 10위권 내 물류 공항들 화물터미널 2개 이상 설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수송전용 화물터미널과 민간항공수송 화물터미널 분리 방안 마련"을 언급한 가운데, 경북도는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공항에 화물터미널을 2개 이상 배치하는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남익 경상북도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항공물류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니즈에 맞게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서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고 화물 종류에 따라 활용을 달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경북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공급자인 행정기관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물류기업들의 요구(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공항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반 화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일정 거리 운송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이오·백신·콜드체인이나 신선 농산물 등은 신속한 운송과 통관이 필수적이라 물류단지화물터미널의 연계성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0위 이

내의 대표적 물류공항인 홍콩 첵랍콕(홍콩), MEMPHIS(미국), 상하이 푸둥(중국), 타이완 타오위안(대만), 로스앤젤레스(미국) 국제공항의 경우 화물터미널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며 물류단지도 연접해 있다.

그 결과 첵랍콕 공항은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물류 허브가 됐으며, MEMPHIS 공항은 글로벌 특송업체인 페덱스의 슈퍼 허브로 공항 주변 물류센터에는 22개국 13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안된 화물터미널에 더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바이오·

백신 콜드체인 및 신선 농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의 화물터미널을 의성 지역에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며 관계기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 건설 주관부처들과 충분한 토론을 갖고 과학적·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대구경북신공항이 세계적 물류전문 경제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목적까지 우리 모두 손잡고 갑시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매일 사령**  
 10월 16일 본사사령 보성 최원영

**공연프로그램**

- 10.13.(금) 개막축하공연(박재정,비비지)
- 10.14.(토)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 10.21.(토) 레전드 가요대전(조성모,민해경, 김병용)

**주요 어린이 프로그램**

- 챌린지 에어바운스
- 종이미로 탈출 어드벤처
- 황금빛 갈대열차
- 갈대숲 생태탐험대

**주요 부대행사**

- 음악이 흐르는 갈대로드
- 갈대숲 미디어 파사드
- 두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 강진만 가을국화전시

제8회 **강진만 추추는 갈대축제**

The 8th GangjinBay Reeds Festival

2023. 10. 13.(금) ~ 10.22.(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주관  
강진군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 경북도의회.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 피해 방지에 앞장

## 김경숙 도의원,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도내 1,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김경숙 의원은 "주유소 등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곳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

다"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화재 등 위험으로 부터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10일 경상북도의회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2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의회, 가족과 함께 하는 새내기 공무원 임용식 개최

##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9급 신규공무원 임용

경주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새내기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무원 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자식의 합격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온 가족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신규공무원과 가족은 경주시의회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기념촬영을 한 후 앞으로 근무하게 될 의회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용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진 9급 신규공무원 임용이다.

신규공무원은 올해 상반기에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며, 이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정책지원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철우 의장은 "경주시의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많이 배우고 익혀 전문성 있는 의회 공무원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경북도의회, 경북관광의 도약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지원체계 마련

## 김용현 도의원,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1)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늘날 관광산업분야에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정의하고, 스마트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플랫폼에 대한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스마트플랫폼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해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광스마트플랫폼은 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경북도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소셜미디어와 어플리케이션,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관광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경북도의 관광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를 경북도 조례에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도지사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플랫폼 활성화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심의집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및 증인 조사 실시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 IB교육사업을 포함한 교육청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및 예산 임의집행 여부 등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 출석 요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교육청의 IB교육사업 등 주요사업 중 일부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편성 내용과 다르게 임의 집행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명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부산시교육청 1억 이상 경성사업 1,038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해 집중 검토해 왔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현지확인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진술 청취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안을 채택하게 됐다.

현지확인에서는 10월 19일 금강초등학교 및 학생인성교육원 등을 방문, 아침제인지 사업과 IB교육사업 등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며, 10월 2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교육청 주요 국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방만한 예산집행 여부와, 사후관리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김광명 특위 위원장은 "이번 증인 출석 및 질의답변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살펴 보겠다"고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시 교육청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방문...철저한 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감독 강화 주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여수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시스템을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와 대산, 울산에 국제적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기업 현황 보고와 안전관리 대책을 청취한 후 종합방재센터 등 현장을 둘러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관계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수행과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 대피에 최우선 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현 위원장은 "산단사고는 그 지리적, 규모적 특성상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도민들과 공장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설비 가동 시 안전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도 각종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대구시의회 자동차정비요원 자격 기준에 차체수리기능사, 보수도장기능사 포함

##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정비업계 환영, 검증된 전문가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 기대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4)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위해서 '자동차정비'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함에 따라 일부 '무자격자'가 차체수리나 보수도장 작업을 수행해 차량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정비요원의 자격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의 기준들도 상위법령에 맞추어 일제히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에 '자동차정비기능사' 외에도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일부 다르게 규정됐던 각종 기준을 상위법에 맞추어 완화하도록 개정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돼 자동차정비업계의 어려운 인력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최근 늘어나는 차량 외관 수리 수요에 맞추어 검증된 전문가의 향상된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의 안전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만족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사: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균형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 1·2기 신도시의 단점, 과연 3기 신도시는 보완할 것인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0월 13일 광명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균형을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남지현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연구위원은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생

활SOC를 조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공공시설 품질관리, 민관협력, 커뮤니티 리드형 공간조성, 신도시 상업시설 공급과잉 관리 방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토론을 맡은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부장은 "주거용지 대비 자족기능용지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준엽 부장은 자족용지 추가공급을 통해 1·2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만

드는 도시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남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신도시총괄부장은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도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장벽을 낮춰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3기 신도시 개발, 광명테크노밸리 앵커기업의 유입과 광역 교통망의 개선으로 직주근접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의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축사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 참석

## "박재용 의원, 안성소방서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에서 장애인 단체 복지향상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3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안성소방서를 방문하여 안성지역 장애인 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정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영호 안성시장에 인정보화협회장, 방미희 안성시장에 인부모회장, 김학노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장, 이정애 안성시시각장애인연합회장, 배영환 안성소방서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최윤희 안성시 장애인복지팀장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유영호 회장은 "119구급대가 있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소방서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화기를 보급하고 사용법도 가르쳐 주는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고 했으며 "장애인 여름 캠프를 운영할 때 강원도 장애인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기도의 해수욕장 등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이 경기도 관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방미희 회장은 "발달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김학노 회장은 "최근 장애인식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단체 활동을 위해 중사자 생활임금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이정애 회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직원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이직이 잦고 시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서 저상버스 도입 및 도로 여건 개선, 특수학교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대기 문제, 장애인 광역 콜택시 문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일반인, 교통약자, 장애인 등이 함께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고민하여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장애인이 사회활동 및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배영환 서장은 지역사회 내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 소방 체험시설을 활용한 재난 상황 대비 훈련 등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들과 연계하여 관련 교육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김영희 과장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안성시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의 핵심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최윤희 팀장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께서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며,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의 노력에 감사한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 김동연, 노인의 날 맞아 "어르신 중심 전 연령층 '누구나 돌봄' 전방위 추진"

## 도, 6일(금) '제27회 노인의 날' 맞아 노인복지기여자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 돌봄 정책인 '누구나 돌봄' 등 4대 돌봄 정책을 내년에 대폭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어르신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 보고 돌봄 문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면서 "네 가지 돌봄 정책을 시리저로 하고 싶고, 특히 어르신 돌봄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폭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첫째로는 어르신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돌봄이고, 그걸 '누구나 돌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영유아를 포함한 유보(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 문제, 맞벌이 부모를 두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돌봄이 두 번째이고,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 돌봄이 세 번째"라며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는 반려동물 돌봄이다. 이렇게 하면 생애별 돌봄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예산을) 삭감했는데 경기도는 원래 계획보다 예산을 엮어 추가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내년에도 어르신 일

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행사인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수여했다.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 23명이 도지사, 도의회 의장, 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8월 현재 207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2만여 명 대비 15.25%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인일자리제공·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여가문화 활성화·노인 인권 향상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1만 개를 추가 발굴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현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육아나눔터 실버돌봄미', '안전실버지킴이', '노노케어' 등 10만여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어르신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으며, 어르신 영양제고를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거움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 수원시, '주거위기 가구' 전수 조사해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한 1926가구 전수조사



수원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가구를 전수 조사,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생계·의료·주거)를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1617가구는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전화·우편 등 비대면 조사를 우선으로 해 조사자와 대상자 간 접촉을 최소화했고, 연락되지 않는 가구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현장 점검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수원시가 2021년부터 선제적인 주거복지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다"며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세대 등을 조사해서 시민 주거복지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화성시민아카이브 특별기획전시 '나는 화성시민입니다' 개최

화성시가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화성시민아카이브 특별기획전시 '나는 화성시민입니다'를 서연이음터와 병점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이 화성시민의 발자취를 발굴, 조사, 기록하는 화성시민아카이브사업을 통해 수집한 화성시민의 삶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텍스트, 영상, 박물관 등 화성시민의 삶이 담긴 다양한 기록물을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객이 남긴 메시지가 기록물이 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도 운영된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은 "100만 특

례시로 도약하는 화성시민의 삶은 화성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며, "시민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의미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100만 특례시

화성시민아카이브 특별기획전시

나는 화성시민입니다.

아카이브는 가치있고 의미있는 기록보존소입니다. 도시에서 가장 가치있는 '시민의 삶'을 여기 전시합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초대합니다.

기간 2023. 10. 16 ~ 11. 16

장소 메인전시-서연이음터 연계전시-병점역

문의 화성시 자치행정과 031-5189-1764 hsarchive.org

#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별 기반시설 안전감시단 운영

## 분당 먼저 220명 구성·발대...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수정·중원·분당구별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3개구 중에서 분당구가 먼저 220명의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을 구성해 지난 6일 발대식을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분당구 기반시설 안전감시단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일반 시민, 자율방재단, 환경미화원, 공동구 유지관리업체 직원, 구청 소속 도로관리원·준설원·교량관리원·녹지관리원·주차관리원 등으로 꾸러졌다.

이들 감시단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분당지역 교량(181개), 도로(10여곳), 지하차도(21개), 지하보

도(27개), 맨홀(1만6294개), 옹벽(5개), 수목(3만1826그루), 빗물받이(3만3556개) 등의 기반시설 상태를 관찰한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단톡방에 사진과 위치, 발견한 위험 사항 등을 올려 분당구청 관계부서와 내용을 공유한다.

분당구 소속 감시단 고병현 씨(남, 58세)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라면서 "안전한 분당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원구 기반시설 안전감시단(100명)은 오는 10월 24일, 수정구 기반시설 안전감시단(100명)은 오는 10월 26일 각각 발대한다.

김범상/기자



# 안양시, 세대공감교육 '1.3세대 행복한 동행' 성료

## 조부모, 부모, 자녀 등 150여명 참여... 교육부터 캠프까지 다채 프로그램 진행



안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대공감교육 '1.3세대 행복한 동행'이 조부모, 부모와 자녀 등 관내 25가족 15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안양시 가족센터는 첫날(11일) 온라인으로 가족 의사소통 교육 및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교육을, 12일에는 가족센터 교육실에서 함께 활동하는 가족터서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지막날인 14일에는 동안구청 강당에서 가족 간 소통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족 소통 캠프를 운영했다. 이날 참여가족들은 가족 화합 체육 활동, 가족 얼굴 꾸미기, 액자 만들기, 가족 문패 만들기, 감사편지 작성하기 등 다채로

운 활동으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또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물물동아리의 협조로 조부모와 부모를 위한 토끼모형성물을 제작해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는 "손자녀 양육 교육을 들으면서 평소 손자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돼 큰 도움이 됐고 즐거운 추억을 갖게 돼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오연주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에서 손자녀까지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프로그램 이후에도 온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소통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고양시, 창업·투자 촉진하는 기업생태계 조성... '창업의 꿈' 응원

## 이동환 시장 "기술·투자·산업성장의 순환구조 구축...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고양특례시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생 기업(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시는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아이알(IR)-데이, 고양벤처펀드 조성,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여 창업과 투자 활동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창업을 통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투자금의 회수와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산업생태계 순환구조를 구축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2023 하반기 고양 아이알(IR)-데이, 39개 창업기업 투자유치 경쟁 시는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해 10월 19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 하반기 고양 아이알(IR)-데이'를 개최한다.

아이알(IR)-데이는 투자유치를 위한 창업경진대회로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된다.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아이알-데이 행사에는 총 59개 업체가 참여했고 이번 하반기에는 총 39개사가 참여했다. 시는 서류평가와 중간평가로 선정된 최종 10개 기업에게 투자유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전문가 교육과 1:1 심층 멘토링을 지원했다.

이들 10개 기업은 10월 19일 '2023 하반기 고양 IR-데이'에 참여하여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를 상대로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기업 포상과 고양벤처펀드 투자심사 기회도 주어진다.

시는 아이알(IR)-데이 행사 이후에도 우수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1:1 투자 상담회를 지원한다. 고양벤처펀드 운영사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 판로 개척, 맞춤형 투자상담을 실시해 기업성장을 위한 조건을 제공한다.

고양벤처펀드 3호, 청년창업펀드 조성 추진...투자유치 기회 확대 시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투자를 위

성한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시 예산 10억원, 정부 및 민간자금 등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이밖에도 창업·벤처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창업멘토링데이, 관내 스타트업 판매촉진을 위한 팝업스토어, 창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양원스톱창업플랫폼,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추진...첨단산업생태계 조성 시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고양시에 벤처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지구를 조성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족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용역에는 벤처기업 육성계획, 고양시 벤처기업 및 일반중소기업 상세 현황,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적입지의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집단·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서 선정한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가 35% 경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경기도 5개 지역)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시는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등의 세계적인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첨단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안산시, 새내기 공직자에게 '웰컴박스'로 따뜻한 환영

안산시는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공직 생활 첫 출발을 응원하고 환영하는 이벤트로 '웰컴박스'를 전달해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웰컴박스는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환영메시지와 함께 업무수첩, 미니노트, 필통, 볼펜 등 새로운 업무환경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담은 선물박스다.

최근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조기퇴직 공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는 공직자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격려와 더불어 신규직원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조직문화 조성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규직원들의 공직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웰컴박스가 신규 공직자들의 근무 적응에 따뜻한 응원이



# 용인특례시,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2개 종목 수상

### 산림 교육프로그램·산림교육 체험교구 개발 분야서 각각 최우수상·우수상 받아



용인특례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세계 켈리 수련장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제17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2개 종목에서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회 종목은 숲해설 시연, 산림교육 체험교구,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숲놀이 시연, 숲사진 공모 총 5개 부문으로, 각 부문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했다. 용인특례시는 산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목에서 최우수상, 산림교육 체험교구 종목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종목에는 송윤지 주무관이 참여해 현장에서 발표된 '침'이라는 주제로 '같이 가치를 품은 침'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자연과 같이, 가족과 같이, 친구와 같이' 활동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침잎 퍼즐(침잎을 포개어 찢은 다음 맞추는 게임), '같이 가치 놀이(침 줄기로 코스를 만들어 양 끝에 집을 짓고 두 팀으로 나눠 가위바위보를 통해 집에 더 많은 인원이 도착한 팀이 이기는 놀이)', '숲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침 줄기로 액자 모양을 만들어 사진의 주인공을 만드는 놀이)', '침잎MBTI(잎을 문 이 자국을 통해 분석하는 놀이)'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교육 체험교구 종목에는 남은정, 송윤지 주무관이 한 팀으로 참여해 '용인(龍 in) 비밀의 숲'을 제작했다. 교구는 비밀의 숲에 살고 있는 용이 되고 싶은 이무기가 미션을 마치면 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용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

교구는 휴대가 간편하고, 장소 제약이 적으며 자연 재료와 폐목을 활용해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에코보자기를 활용한 뱀 주사위 보자기와 폐목으로 만든 주사위, 말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두 팀으로 나눠 주사위를 굴러 나온 숫자만큼 칸을 이동하며 다양한 자연에 관한 미션을 수행하는 교구다.

시 관계자는 "수상작들을 용인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느낄 수 있는 친자연적인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 "공무원 증원 절실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공무원 기준인력·기준인건비 부족 문제 해결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정부 차관 면담은 지난 5월 이어온 두 번째 방문으로, 하남시민의 만족도 향상과 행정혁신에 필요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이현재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이뤄졌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부를 방문해 전달한 건의사항에는 ▲신도시 개발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 ▲신도시 내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공사 등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 건립을 위한 시비 미확보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남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4개 신도시(미사.위례.감일.교산)를 조성

함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인구수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 급증에 따라 민원처리건은 신도시 개발 전인 2013년과 비교하여 440%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하남시 공무원 기준인력은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공공복합청사 건립이 절실하고 학령인구의 급증으로 학교 과밀 및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미사5중 공공시설 설치공사 지원 등 최소한의 생활인프라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라며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차관은 "하남시의 현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건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김범상/기자

# 광명시 철산4동, 2023년 주민화합 체육대회 및 주민축제 개최

광명시 철산4동은 시 개청 42주년 광명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14일 광명광덕초등학교에서 철산4동 체육회와 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철산4동 주민화합 체육대회 및 주민축제를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예빛어린이집, 태권도 태무, 하안복중 아카펠라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도미도 풍선 터뜨리기, 2인 3각 게임, 풍선탑세우기, 신발 멀리던지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대회가 진행됐다.

아울러 운동장 한쪽에서는 페트병 미니화분 만들기, 자전거 발전기로 주스 만들기, 양말목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축제가 열려 많은 주민이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민수 철산4동 체육회장은 "오늘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즐겁게 땀 흘리는 시간을 보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문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선임 철산4동 축제추진위원회장은 "올해는 주민축제를 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민들께서 좋은 추억을 만드신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미현 철산4동장은 "이번 체육대회와 주민축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철산4동 체육회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 광주시, 2023년 전자 행정지도 서비스 실시

광주시는 최신의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행정 경계, 주요 도로 노선명 등 다양한 공간정보가 표기돼 있는 '광주시 전자 행정지도'를 자체 제작해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전자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지명, 도로 노선, 건물 등의 공간정보와 공공기관, 공공시설과 관련된 위치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제작한 지도로 이번 전자 행정지도는 시에서 자체 제작해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기존 종이지도 형태로 제작해 배포하던 행정지도는 지도에 표기된 행정구역, 지명, 도로 노선 등이 변경되면 2년을 주기로 추진하던 행정지도 제작 사업 전까지는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시에서 제작해 배포하는 전자 행정지도는 변동 정보의 즉각적인

반영은 물론 배경 지도를 최신의 항공사진이나 일반지도 형태로 다양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체 제작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광주시 전자 행정지도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광주시 전역 행정지도와 16개 읍면동별로 구분된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행정지도 열람은 물론 특별한 제약 없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파일형태로도 제공한다.

김범상/기자



# 의정부미래전략포럼 청년편 10월 24~25일 개최

의정부시는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공간터에서 '의정부미래전략포럼' 청년편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청년의 파동이 도시를 움직인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연사들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던 기존 포럼 방식에 청년정책 모의투자 워크숍을 더해 진행한다.

24일 개최되는 모의투자 워크숍 '어느날 나에게 3억이 생긴다면?'에서는

청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공무원, 청년협의체, 시민이 모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동일한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25일에는 '도시를 움직이는 파동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질문에 대해 연사와 함께 하는 강연과 토크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중주시 홍보담당자 김선태 주무관이 청년 공무원의 생동감 있는 기획력이 시에 가져온 변화를, 의정부 문화도시 청

년 크리에이터 (썬)머든 조혜영 대표가 청년 기업가로서 도시와 청년 기업이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이규현 위원장이 청년협의체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의정부시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3명의 강연자와 시민, 청년정책 관계기관 등 포럼에 참석한 50여 명이 모여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의정부 청년정책의 비전을 논의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사전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연사들의 주제 발표 영상은 추후 의정부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정부LIVE)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 속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가고 있다"며, "이번 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의정부시가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현해 '청년이 바꾸는 도시'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 우리 수산물

# 안심하고 드세요!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 美 소비자에게 '경북의 맛' 알려

## 식품산업 대전환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

경북도는 14일 미국 LA 지역에 위치한 Foodot(푸드)과 경북 농식품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선 장 푸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경북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푸드에는 2021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 매출 3백만 불(약 40억 원)에 달하며 글로벌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아마존시장으로 신산업 론칭 및 전략 컨설팅 등 온오프라인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에서 생산한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하고 시장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판촉 및 판매 확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경북 농식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H마트 부에나파크점에서 진행된 2023 K-경북푸드 홍보전에서는 영국의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 앞선 전통주인

안동소주를 현지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경북 전통주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떡볶이, 장류 등 다양한 경북 농식품의 매력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한편, 2023년 9월 말 기준 경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7억 343만불이며 이중 미국은 6,159만불로 8.8%(4위)를 차지했다.

경북도는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충해 나가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홍보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해 해외 시장 개척에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거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 K-경북푸드를 소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경북 농식품 판로확보와 지역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된다"라며, "특히, 홍보판촉전을 통해 전통 방식의 안동소주를 미국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기회가 됐다"며, "세계화 전략을 추진 중인 경북의 전통 명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그러면서 "경북은 1차 산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대표 농도(農道)로 식품산업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향이 개항하면 더욱 빠르게 세계 시장을 오갈 수 있어 수출입의 새 날개를 달게 된다"면서 "올해 농식품 수출 9억불 달성을 목표로 K-푸드 국가대표인 경북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2025 APEC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 50만명 돌파

## 13일 기준 한달여 100만 서명운동 결과 54만7644명 동참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13일 기준 54만76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뤘던 성과라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북도내 21개 시군과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는 물론 100만 서명운동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뤘던 성과라고 밝혔다.

비록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협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달여만에 50만명이 넘는 서명 결과는 인구 25만명에 불과한 지방도시 경주에서 시민들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는 이달까지 집중 서명운동 기간 온

으로 조기에 100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경 APEC 개최 도시 공모 신청에 앞서 외교부 개최도시 선정추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은 11월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계속 진행된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서명운동 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인식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된다.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군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하면 되며,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에서 서명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시민과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통한 유치 의지를 더욱 결집하고, 유치 공감대와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더욱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태용/기자

# '2023 부산혁신도시 사진·디자인 공모전' 개최

## 11.10까지 부산 혁신도시를 표현한 사진·디자인·회화 작품 대상 공모전 진행

부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3 부산혁신도시 사진·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 혁신도시 상생발전 및 부산 지역의 문화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혁신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 확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부산 혁신도시의 기능 및 효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 대상은 부산 혁신도시를 표현한 사진·디자인·회화 작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 혁신도시(문현, 대연, 센텀, 동삼지구)의 다양한 모습 또는 해양, 영화·영상·게임, 금융 등 혁신도시 기능군을 잘 표현한 사진·회화 작품이면 된다.

공모 신청은 혁신도시 공모전 누리집

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사진과 디자인을 대상으로 주제 창작성, 활용성, 상징성을 평가해 최종 5개 작품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점(부산시장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4점(부산시장상,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들은 부산 혁신도시 홍보를 위한 자료 및 홍보 물품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희태/기자



# 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리뉴페스타 성료

대구 중구는 지난 10월 14일~15일 양일간 김대봉동 김광석길 일원에서 개최한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새롭게하다. 리뉴페스타(Renew Festa)'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김광석길의 매력을 알리고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벽화작품 공모전으로 총 9점의 벽화를 새로 설치했고, 콘서트홀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풍성한 무대공연 연출과 함께 음악과 벽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재미를 더하는 포토존으로 김광석길을 찾는 시민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김광석길이 최초 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나 노후화 된 벽화를 조세로운 감성으로 대부분 교체하고, 김광석 콘서트홀 시설을 정비하는 등 김광석길 전반을 새롭게 단장한 벽화와 김광석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김광석길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김광석 길 리뉴페스타로 새롭게 그려진 벽화와 콘서트홀에 조성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김광석길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청송군, 행정안전부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2년 연속 선정

청송군은 행정안전부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달빛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송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달빛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 사업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수변테크 설치, 경관조명 설치, 노후된 약수탕 환경개선 등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관광객들의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복합공간인 로컬 영커스톰어 건립 등의 체험 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대표메뉴 개발 및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자생력을 강화 시키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과거 달기약수탕의 명성을 되찾고 MZ세대들의 발길을 끌어 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여 달기약수탕 지구의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달기약수탕 상가지역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골목경제 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송군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선정을 계기로 노후된 약수탕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생동감 넘치는 지역의 대표 음식 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달기약수탕 지구는 물론 '산소카페 청송군'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청송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사랑상품권, 10월 13일 ~ 16일 서비스 일시 중단

영양군에서는 영양사랑상품권 전반에 대한 서비스가 오는 10월 13일 오전 00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기간 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구입과 환전이 불가하고,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충전, 결제, 환불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다.

가맹점 정산은 10월 12일까지 결제 및 환전 건에 대해서 10월 13일 일괄 정산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chak 시스템 개편 작업'에 따른 조치이며, 작업이 완료되면 영양사랑상품권 충전·결제 등 주요 기능 속도가 개선되고 회원 간 잔액 이관, 잔액 기준 자동 충전 등의 신규 기능이 추가되는 등 사용자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전체 이용자 대상 문자 발송, 앱 푸시 메시지 알림,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영양사랑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은 그동안 불편했던 기능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상품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전수경 연구사, 한국생명과학회 학술발표상 수상

## 열대마 주아의 영양적 특성과 항혈전 활성 밝혀... 산업소재 활용 가능성 시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 전수경 연구사는 최근 경남 산청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생명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학술발표상을 수상했다.

'건강한 즐거움을 위한 천연물 기반 생명'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전수경 연구사는 '열대마(Dioscorea alata) 주아의 항응고 및 혈소판 응집 억제 활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안동대학교 손호용 교수팀과의 공동연구 결과로 열대마 주아의 영양적 특성과 항혈전 활성을 국내산 마(D. polystachya)와 비교한 결과, 열대마 주아는 국내 자생마에 비해 우수한 영양적 특성과 강력한 항응고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트롬빈, 프로트롬빈, 혈액응고인자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아스피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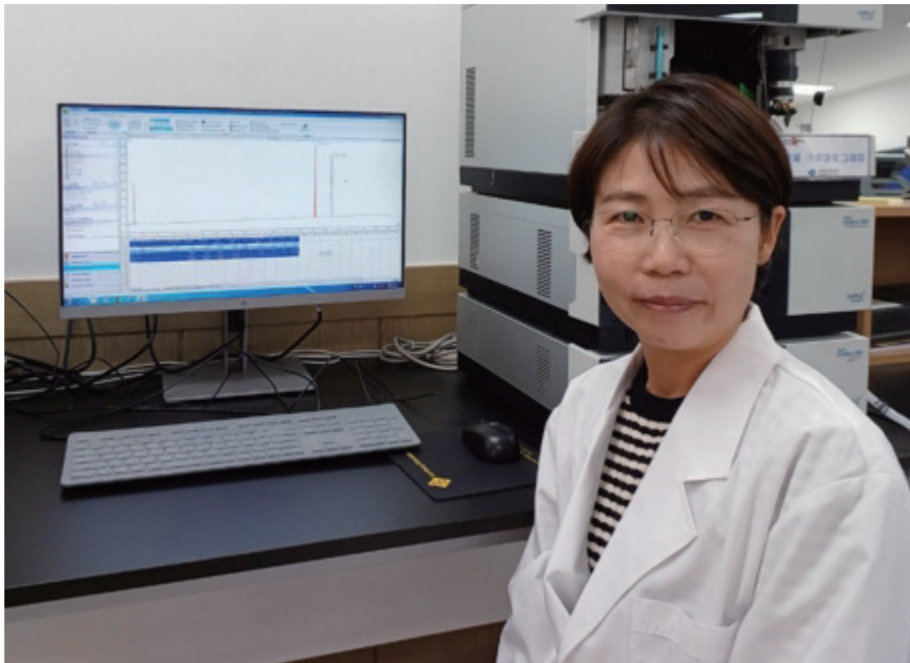
맞먹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열대마 주아의 고부가가치 항응고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2022년부터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마 소비 계층 확대와 지역특화 브랜드화'라는 목표로 조직감이 개선된 마 젤리 제조 방법 등 특허출원 4건, 기술이전 1건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안동대, 경북대 등과 마 생리활성 평가, 가공 제품 개발을 위해 협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작물의 식품 소재화와 산업화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연구 결과물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해 산·학·연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국내 최대 규모 캠핑축제 열려

## '낙동강변 1,500동 텐트촌 진풍경'

안동시는 고아웃코리아가 주최하고 안동시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캠핑 문화축제인 '제16회 고아웃캠프'가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강변공원(안동경찰서 뒤편 ~ 영가대교 하단)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1,500동 규모의 캠핑존이 매진되며 가족·연인·캠핑 마니아 등 약 1만여 명이 호반의 도시 안동을 찾아 수려한 낙동강변을 배경으로 텐트촌을 차렸다. 올빼미존과 패밀리존으로 나눠 배치하고 ▲토크콘서트, ▲BBQ전야제, 열기구·스트라이더·카누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기리보이, 팔로알토, 앙다일, 유성은&키스 등 유명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아이리시 위스키 브랜드 '제임슨(JAMESON)'이 캠핑 축제 '고아웃캠프'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행사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축제장 내에 아일랜드 더

블린 증류소 분위기를 살린 제임슨 빌리지(JAMESON VILLAGE) 존을 운영하고 제임슨 하이볼 익스피리언스와 푸드 페어링, 칵테일 클래스, 제임슨 고아웃 애프터 파티, 제임슨 커스터마이징 존, 게임존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캠핑족들은 원도심과 10분 거리 내의 캠핑장을 교두보로 삼고 하회마을, 도산서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월영교 등 안동의 관광명소를 돌아보고, 근거리인 원도심 내 찜질골목, 간고등어 축제장, 갈비골목,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안동의 미식코스를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안동시 열린 캠핑 축제 중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인파가 참여하며 낙동강 상류 수려한 수변자원을 보유한 관광거점도시 안동이 캠핑의 도시로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지속 가능한 산불 피해지역 활용 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울진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산불 피해지역 활용방안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불 피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용역 최종보고 및 의견 수렴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숲과 생태계,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숲, 상실에 대한 아픔을 기억 그리고 극복, 숲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숲이라는 4개 전략으로 접근하여 ① 지속 가능한 생태공존 숲(국립 산지생태원) ② 나곡 모두의 숲(내화수림&정원) ③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④ 소독 창출 먹거리 숲 ⑤ 울진 탄소 상쇄숲 ⑥ 울진원 특화숲 ⑦ 기억의 숲, 도화 ⑧ 동서트레일 센터 ⑨ 반려동물 친화골프 리조트 ⑩ 표고 보고 먹고 페스티벌 등 12개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주요 사업별로 단계·중장기로 구분하고 사업 우선순

위를 도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예산이 확보된 '덕구 힐링 & 가든 숲' 조성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나머지 중·장기 사업은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의성군, 2023 경북마을이야기 박람회 성료

의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상주시에서 개최된 "2023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서 의성군 대표마을로 참가한 사곡면 오상2리(거북바위마을)가 도지사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오상2리는 첫째날 마을 먹거리 한마당에 의성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을 활용한 '의성마늘떡갈비'를 준비해 심사단 및 관람객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둘째날 마을문화공연에 거북바위 소개와 함께 수준높은 트롯장구 공연으로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날인 15일 마을신바람 가요제는 그야말로 오상2리 주민들의 잔치였다. 타곡난실력으로 노래자랑 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정금자/기자

이처럼 모든 경연에서 눈에 띄는 활약과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3일동안 마을주민 6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박람회의 활기찬 분위기를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종합 1위인 도지사상(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모두가 한마음 열정으로 박람회를 준비하고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 박람회 1위를 차지한 오상2리 주민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이번 박람회는 의성군과 오상2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군은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어 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영주시, 대한적십자사 영주평은봉사회 영주호 용마루공원 일원 환경정화 활동 펼쳐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영주평은봉사회는 16일 평은면 영주호 용마루공원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영주평은봉사회원 15여 명이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평은면 용마루공원(용미교에서 옛 평은역사까지)을 걸으며 장미넝쿨 풀베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영주호 용마루공원은 산책과 나들이 코스로도 좋은 곳으로 출렁다리, 장미터널, 전망데크, 쉼터 등이 조성되어 있어 영주댐 준공 이후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후남 평은면 적십자봉사회장은 "아침부터 회원들이 다함께 모여 영주호 용마루공원 일원을 정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호정 평은면장은 "영주댐 준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댐 일원을 찾는 가운데 공원 풀베기 및 쓰레기 수거 환경정화 활동으로 영주호 용마루공원 일원이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났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금자/기자

# 예천군, '신도시 청소년 마음 틈옴 캠프' 개최

## "아빠랑 캠프"...아빠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예천군은 지난 14부터 15일까지 '신도시 청소년 마음틈옴 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신도시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신도시 청소년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신도시 청소년 마음틈옴 캠프'는 신도시 청소년과 부모 간 단절된 관계를 되살려 가족 공동체 기능을 회복

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과 아버지가 함께하는 '아빠랑 캠프'로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아버지로 구성된 16가구 38명이 참가해 신도시 패밀리카 캠프장에 열렸으며 8월 3

보면에서 열린 엄마캠프에 이은 두 번째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가족소통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아빠와 함께하는 인간관계훈련, 가족숏폼영상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가족 관계 발전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금자/기자

# 영덕군, 국내 최초 여성 서핑대회 '2023 코리아 와히니 클래식' 성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 사카서프가 주관한 국내 최초 여성 서핑대회 '2023 코리아 와히니 클래식(2023 KOREA Whine Classic)'이 10월 7일~8일 이틀 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2023 코리아 와히니 클래식'은 국내 여성 서퍼들이 규합하여 영덕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한 순수 여성부 서핑대회로서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을 동해안 신규 서핑 명소로 알리고자 기획됐다. 본 행사는 서핑대회 뿐 아니라 비치요

가체험, 서프아트 전시, 프리마켓, 비치클린, 뮤지션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이번 행사를 위해 서핑 관련 10개 이상의 업체가 스폰서로 지원했다.

서핑대회에 참가한 서퍼 선수들은 10살부터 48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국내의 총 45명이며, 그중 해외 선수도 3명 참가해서 눈길을 끌었다. 대회가 종료된 후 10대부 4명, 20대부 4명, 30대부 4명, 40대부 4명, 프로부 4명 총 20명이 입상자로 선정돼 트로피를 받았다. 대회의 꽃인 프로부 결승전의 1위

는 하와이에서 온 니크 밀러(Nique Miller)선수가 차지했다. 그 밖에 제주 출신의 김지나 선수가 2위, 양양 출신의 박시아 선수가 3위, 부산 출신의 강경민 선수가 4위에 올랐다.

대회를 주관한 사카서프 관계자는 "아름다운 영덕의 바다에서 한국의 여성 서퍼들이 모여 파도를 타는 모습은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날씨와 파도까지 좋아서 모든 게 완벽했던 제1회 코리아 와히니 클래식이 됐다"고 자랑했다.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담당자도 "이번 행사가 전국 최초로 열리는 여성

장문화/기자



# 문경시, 제14회 문경오미자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성료

## 문경서 전국 테니스 황제 가렸다

문경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영강체육공원에서 '제14회 문경오미자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테니스협회가 주관, 문경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나눴다.

대회는 개나리부, 국화부, 전국신인부

로 나뉘어 진행되어 치열한 각축전 끝에 ▲개나리부-송권미, 최혜경 ▲전국신인부-김영옥, 김한석 ▲국화부-예주연, 고은솔 선수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깊어 가는 가을 문경은 각종 체육대회로 분주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이미지 상승 등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금천구, '산사태 걱정 없다' 산사태 취약지역 14곳 예방사업 완료

## 산림재해 예방을 주제로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 개최

금천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지역 14곳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동고서저 지형으로, 동쪽은 산지가 있어 급경사 지역이 있고, 서쪽은 비교적 저지대로 이루어져 토사유출 등 산림재해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3월부터 호암산 숲길공원, 궁도장 인근 등 6곳을 대상으로 '계류 복구 및 연장' 공사를 실시했다. 집중호우 시 유량을 수용하고,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물길을 확충하고, 사방댐을 설치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산림피해가 발생한 시흥4동 주택가와 맞닿아 있는 '위험 사면' 3곳을 다중역지말뚝, 흙막이 설치 공법 등으로 안정화했다. 이후 사면에 역세, 수호초, 칠자화 등 꽃과 나무로 수직 정원을 만들어 경관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 운영하는 사방시설

5곳을 정비 완료했다.

금천구는 10월 12일 시흥4동 주민과 함께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시흥4동'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개최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사는 주민 30여 명과 재해 예방공사를 완료한 곳을 순회하면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조사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한 지역은 2024년부터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속되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신속한 복구, 선제적 예방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피해를 막겠다"라며, "또한 주민 여러분께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강남구, 특별한 액자에 담은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 '페인터스 드림' 전시

## 민관협력 ESG 공모사업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탑재한 특수 액자에 장애인 화가 작품 90점 제작, 전시, 판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주)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주),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나팔과 함께 장애인 예술가의 자립을 지원하는 페인터스 드림(Painter's Dream) 사업을 추진하고,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작품 90점을 강남구청과 구민회관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작품성은 우수하지만 판로 개척이 어려운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있는 액자로 제작하고 전시·판매해 수익을 작가에게 환원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다.

2021년부터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나팔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사업이었으나, 올해 강남구에서 추진한 제1회'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공모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확대 추진하게 됐다. 강남구는 예산, 전시 장소,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전시 작품들은 일반 캔버스가 아닌, 블루투스 스피커가 장착된 스틸 액자에 제작된다. 이 액자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주)나팔과 포스코스틸리온(주)에서 지원했다. 전시 주제 '세계의 감각, 하나의 예술'은 이 액자의 특성을 담았다.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고(시각),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청각), 특유의 질감을 느끼는(촉각) 3가지 감각이 하나의 예술을 이룬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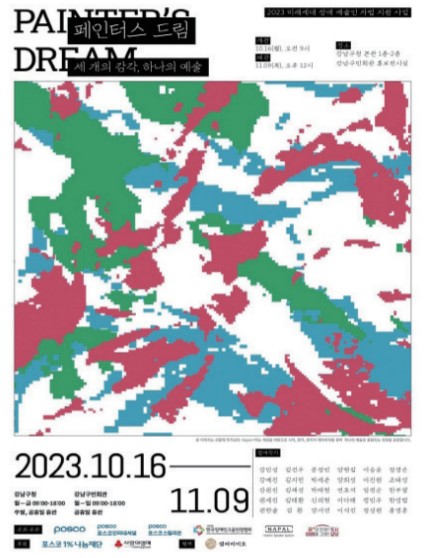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화가 30인의 작품 총 90점을 전시한다. 특수 제작된 액자에 작가가 직접 작품을 그린 원화 30점과 포스코의 스틸 강판 위에 작품의 질감을 살려 특수 인쇄한 포사트 60점이다. 강남구청 2층 복도에 32점, 강남구민

회관 홍보전시실에 58점이 전시되고, 관람객은 이 스피커형 액자를 체험해볼 수 있다.

18일 10시 구청에서 전시회 개막 축하 행사가 열린다. 주최 기관과 참여 화가들이 모두 참석해 이번 전시회를 기념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트아트재단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앙상블팀이 축하공연을 열어 전시회 분위기를 돋운다. 작품은 모두 구매할 수 있으며, 전시회 홍보부스에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ESG 경영을 실천하려는 우수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강남구만의 남다른 ESG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청소년을 위한 테마파크가 열린다...영등포구, '포포페스타' 개최

## 가수 단단의 축하공연과 로봇·드론 체험 등 100여 개의 전시·체험, 20여 개의 공연이 가득



영등포구가 21일 오후 2시, 영등포공원에서 청소년·과학·진로·책 축제가 하나로 모인 영등포 대표 교육축제 '포포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의 '포'와 네(four) 가지 행사를 뜻하는 '포(four)'를 더해 '포포'라는 이름이 붙여진 '포포페스타'는 '청소년·과학·진로·책' 네 가지 축제가 한자리에

진행되는 축제이다.

올해 5회를 맞은 '포포페스타'는 작년보다 진행 시간도 길어지고, 규모가 더욱 커졌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길어진 축제 시간만큼 55개 청소년 동아리와 23개 기관과 단체, 주민이 참여

해 영등포공원 곳곳에는 100여 개의 체험과 전시, 20여 개의 공연, 이벤트가 펼쳐진다.

먼저 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과 진로, 과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중강현실(AR) 스포츠 체험 ▲드론축구 ▲로봇 만들기 ▲인공지능로봇 체험 ▲중력과 하중 실험 ▲국립과천과학관과 서울시립과학관과 연계한 과학 원리 실험 등이 진행된다.

눈에 띄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YDP성인문해교육센터 어르신들의 시화전을 비롯해 북아트, 자작곡, 동아리 작품 전시가 펼쳐진다.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축제 인증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리면 네트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텀블러를 제시하면 음료를 나눠준다.

캠핑 분위기로 꾸며진 리딩존에는 의자와 책 바꾸기 속에서 축제 중간에 휴식도 취할 수 있다.

오후 4시에 열리는 개회식에는 가수 '단단'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린다. 인공지능 로봇 '페퍼'가 무대에 깜짝 등장해 개회식 진행도 맡는다. 마술사 최희원의 과학마술쇼, '올해의 한 책' 선포식, 청소년 동아리의 열정적인 공연도 이어진다.

아울러 구는 안전과 관람객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한다. 행사장 전반에 전문 경호인력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두어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유모차와 휠체어 대여 부스도

마련해 누구나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기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는 한편,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도 찾기를 바란다"라며 "미래교육 도시 영등포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성북구-벤엘교회 '서울형 키즈카페' 무상임대 협약 체결

## 어린이가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조성으로 어린이의 놀이권 증진

서울 성북구가 13일 벤엘교회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공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에서 설치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중 민간시설의 공간 제공으로 조성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협약으로 벤엘교회는 교회 건물 1층 일부를 성북구에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재탄생한 키즈카페를 서울시민에게 개방한다.

2024년 개관 예정인 벤엘교회 내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양한 놀이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어린이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항상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키즈카페 조성을 위해 흔쾌히 공간을 제공해주신 벤엘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놀이문화를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놀이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 서울시, 약자 위한 혁신기술 경연대회 참가기업 10월 27일까지 모집

## 11월 18일 DDP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첫 개최...신기술 발표회, 토크콘서트 등 즐길거리 제공

장애인·노약자들의 대표적 이동수단인 휠체어에 바퀴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휠라테스(휠체어+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투자유치를 겨루는 경연대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1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편, 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IR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업을 10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는 50개 여 개의 약자동행 기술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신 경향 소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약자동행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경연발표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약자동

행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신기술 발표회'·'시민들과 약자동행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약자동행 토크콘서트'·'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이 약자동행 기술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IR 경연대회는 1차 사전심사(서류심사), 최종 결선 총 2단계로 이뤄진다. 1차 사전심사를 통해 결선 진출 기업을 선정하고, '2023년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에서 열리는 최종 결선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최종 결선은 PT 발표 형식으로 진행된다.

1차 사전심사는 '문제해결 타당성, 역량 및 인적 구성, 기술/제품의 우수성, 시장성' 총 4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1차 심사를 통과 후 결선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게는 IR 경연대회를 위한 피칭 인큐베이팅(초기 창업 기업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제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 및

상장과 함께 약자동행 기술박람회 투자기업들과의 미팅(meet-up·맞춤형 설명회)까지 연결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우승팀뿐만 아니라, 2등을 수상한 1개 기업에게는 5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증, 3등을 수상한 3개의 기업에게는 각각 1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IR 경연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용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 누리집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만큼 IR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약자동행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3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 분야 국내 최대 종합 행사인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3('KMF 2023)」을 202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KMF 2023'은 'Again 메타버스, A.I.와 손잡다'를 주제로 개막식,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 메타버스 어워드·경연대회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산업계는 물론 학계, 연구계, 정부 등 메타버스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다. 특히, 올해에는 KMF 2023 개최 주관을 '메타버스 워크'로 지정하여 메타버스 관련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10월 16일 개막식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신수정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의 환영사,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유지상 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위원장의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당일 오후에 개최되는 '글로벌 컨퍼런스-The MEANS'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메타버스 정책발표에 이어 META, HTC, 네이버제트 등 국내외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하여 발전하는 메타버스의 미래상과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한다.

10월 17일에는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 등이 개최된다.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컨퍼런스에서는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의 현대원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메타버스 윤리, 저작권 등 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고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가능성 등에 대해 전망해본다. 또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자방향 및 전략을 공유하고 기업과 투자사 간 비즈니스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8일에는 메타버스 어워드·개발자 경연대회 시상식과 어워드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다. 오전 시상식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15개 기업·기관과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36개 팀을 시상한다. 오후에 개최되는 메타버스 어워드 컨퍼런스는 어워드 수상 기업·기관들이 콘텐츠·솔루션, 디바이스 등 혁신개발 사례, 공공·민간의 우수 활용 사례 등에 대해 관람객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KMF 2023' 전시회에는 KT, SKT, HTC 등 국내·외 메타버스 선도기업을 비롯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91개 기업이 참가한다. 메타버스 선도기업인 KT와 SKT는 '메타 라운지'와 '이프랜드'를 내세워 한층 고도화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고, 대만 HTC는 메타버스 플랫폼 'VIVERSE'와 VR 헤드셋 'VIVE XR Elite'를 소개한다. 이외에도 국내 AR분야 대표기업인 버넥트를 비롯하여 올림플래닛, 피앤씨솔루션, 이엑스, 모션테크놀로지 등 국내 유망 메타버스 중소기업들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전북도, 내년도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에 62억원 지원

##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조성비 70% 지원

지난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결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원에 스마트팜 개소당 4억 4천만원을 지원해 가족단위의 농촌 정착과 즉시 농업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도내 인구감소가 우려되는 동부권 시·군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제외)이며, 타시도 청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농촌의 젊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해 '둔버는 젊은 농촌'을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농업에 신규진입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지원만으로는 농촌 정착과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년농업인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이 안정화될때까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전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재배작물 선택, 유통방안 등으로 습득하고, 지역정착에 필요한 리더 교육과 갈등관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청년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과장은 "이제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 스마트팜' 선도지역으로 성장했다"며, "다양한 스마트팜 확산 정책으

로 인해 농촌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청년 스마트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이달 10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서류와 대면평가를 통해 11월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남출/기자

# 고양특례시 '2024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 차질 없이 준비 중

## 컨텍스와 업무협약 체결...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고양특례시는 2024년 개최예정인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 개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컨텍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0월 13일 경기도 투자심사에 통과됐다.

고양시는 최근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드러내며 미래 항공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지난 8월 말 개관한 고양드론엔지니어링 센터는 총 156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4,524㎡,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조성됐다. 국내최대 규모의 실내 비행장, 드론 연구개발 센터, 드론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된 고양시 드론 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K-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에서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실증노선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컨텍스 인근 1만8천㎡ 부지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을 지원한다.

2025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컨텍스~김포공항간(14km)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2024년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하여 드론·도심항공교통

(UAM)을 비롯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관, 학술회의(콘퍼런스), 드론 경연대회, 체험 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제1회 고양 미래형 모빌리티 박람회를 개최한 후 컨텍스와 협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박람회인 '대한민국 첨단기술 대전(가칭 RAD 박람회 / 로보, 인공 지능(AI), 드론, 디지털 등)' 통합 브랜딩을 추진하여 고양시를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중심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 경북교육청,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6연속 우승 출사표 던져

##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북직업계고 학생 선수단 출전 임종식 교육감,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과 교사의 맘과 노력, 격려하며 올해도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대회 마무리와 건승을 기원해"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토)부터 20일(금)까지 7일간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16일(월) 밝혔다. 이번 대회는 보령머드박람회장과 천안, 아산, 공주에 위치한 5개 학교 경기장에서 50개 직종 1,691명의 선수가 지역의 대표 선수로 출전에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41개 직종에 26개 고등학교, 123명의 학생이 대표 선수로 참가해 그간 전국기능경기대회 3년 연속 종합우승과 학생부 5년 연속 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신화

창조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선수에게는 금메달(1,000만 원), 은메달(600만 원), 동메달(400만 원)이 수여되며, 평가 경기를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계고등학교는 최신 실습장과 장비를 갖추고 학생들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과 교사의 맘과 노력을 격려하며 올해도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대회 마무리와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4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11월 1일부터 시작

## 경북교육청,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원아 모집

경북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2024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을 시작한다고 16일(월) 밝혔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유아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유치원 검색·접수·추첨 결과 확인과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학부모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접수를 시작할 수 있고 온라인·현장 교사 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주요 일정으로 우선 모집은 11월 1일

(수)에 회원가입과 동시에 시작되며 결과는 11월 8일(수) 15시에 발표된다. 일반 사전 모집 기간은 11월 16일(목) 9시, 일반 모집은 다음날인 17일(금)에 시작되며, 일반모집 발표는 11월 24일(금) 15시에 이뤄진다. 기타 모집 정원과 상세한 내용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박현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과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11월 1일(수) 2024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서비스 시작됩니다

원서접수 기간	www.go-firstschool.go.kr
1. 개통일자	대상유아
11월 1일(수) 09:00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허가 유아(3세~초등학교 입학 전)
2024학년도 처음학교로 시작	원서접수 방법
2. 우선모집	'처음학교로'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 원서접수
11월 1일(수) 09:00 - 11월 3일(금) 18:00	※ 최대 30까지 지원 가능(연령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은 20명까지 지원 가능)
3. 일반모집 사전접수	※ 자녀 1명당 1회만 접수 가능
11월 15일(수) 09:00 - 11월 16일(목) 23:59	추첨방법
4. 일반모집 본접수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자동 추첨하여 선별
11월 17일(금) 09:00 - 11월 21일(화) 18:00	※ '처음학교로' 접속 수에 따라 선별 순위가 달라진다.
	※ 우선접수 마감 후 추첨
	※ 일반모집은 희망유치원(당첨가능) 추첨
	추첨 및 결과발표
	우선모집 11월 8일(수) 15시
	※ 모바일 확인은 15시 10분부터 가능
	일반모집 11월 24일(금) 15시
	※ 모바일 확인은 15시 10분부터 가능

※ 자세한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등은 입학관리시스템을 참고해 주세요.

# Wee프로젝트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2023 청송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상담컨설팅 실시



청송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0월 13일 청송Wee센터에서 Wee센터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상담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송위덕 교수(경일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강사로 초빙하여 청송 관내 Wee센터 및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상담 컨설팅을 통해 평소 상담 장면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전문가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상담의 결과들을 성찰하고, 내담자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청송교육지원청 정태호 교육지원과장(청송Wee센터장)은 "이번 상담 컨설팅이 관내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학업 중단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잡 job 아 我 드림 dream!

## 의성중학교, 찾아가는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의성중학교는 지난 13일(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잡 job 아 我 드림 dream'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학교 방문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주관으로,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의성중학교는 지난 13일(금), 1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잡 job 아 我 드림 dream'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학교 방문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주관으로,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정금자/기자



# 칠곡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칠곡 특수학급 연합 체육대회 '꿈을 찾아 Run, Learn, Run!' 실시

칠곡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3일(금), 칠곡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급 연합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꿈을 찾아 Run, Learn, Run!'이라는 주제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 및 협동심, 사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됐던 정서/신체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학생들이 활기차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인솔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인력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협력 및 협동을 하여 체육대회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또한 매직버블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용택 교육지원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사, 지원인력 등 모두가 함께 협동과 협력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과 인격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양한 단체활동을 통해 특수학생들의 사회 적응력 및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러 색이 모여

무지개를 만들 듯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모두 다양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우수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 예천장터

물 좋기로 소문난 鳳凰, 非醴泉不飲(莊子)  
봉황은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장자)

## 醴泉

단술 에 샘 천

예천 사과

예천 참기름

예천 쌀

예천 한우

NAVER 예천장터

검색창에서 예천장터를 검색하세요!

주문 및 상담안내 : 054)650-6280  
http://www.ycjang.kr

#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가을철 산악사고 안전 대책 추진

## 서울시, 산악사고 구조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산악 사고다발지역 추출

서울시는 가을철 증가하는 등산·도보 여행에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산악사고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산악사고 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원인별 사고다발지역을 추출하고 가을철 등산객의 위험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등산·도보 여행 인구는 매년 지속 증가 추세이며, 산악사고 출동 또한 최근 3년간 5,562건으로 증가해 왔다.

전국 성인 78%가 월 1회 이상 등산·도보 여행을 떠나며(산림청), 서울시 산악사고 출동 건수와 인명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악사고가 지속 증가했으며, 연중 10월, 주말 13~15시 사이에 출동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구조대상자가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 20대와 60대의 구조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고원인별로 보았을 때 20대는 조난사고, 50대는 실족·추락사고가 많아 연령별 맞춤형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악사고 위치 정보 기반으로 5개 산의 사고다발지역을 추출한 결과, 사고원인과 산악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이 추출됐다.

일례로 수락산 안부 삼거리-치마바위 구간에서 조난사고가, 아차산 해맞이공원-해맞이명소 부근에서 실족·추락(발목 염좌)사고가 비교적 잦았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 연령대별 맞춤형 사고 대처방안, 산악구조 훈련 등의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소방재난본부는 10월 중 산악별 사고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대책으로 ▲산악안전지도 현행화 ▲산악사고 예방캠페인 ▲산악사고 다발 지역 유형별 산악구조 훈련을 추진한다.

산악사고 예방캠페인 시 산악별 사고 원인 및 사고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사고 다발지역의 사고 유형별 맞춤형 훈련을 진행했다.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사고지역의 주요 지형과 헬기 유도 동선을 파악하고, 경찰·지자체·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조난자 탐색을 대비한 소방 드론 현지 적용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가을

철 시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예방 순찰 활동과 현장 중심 구조훈련으로 산악안전사고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가까운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포항시,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실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나서

## 현장에 찾아가는 체험형 실전 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의 이해도 높여 큰 호응

포항시는 13일 포항해맞이초등학교에서 재난에 취약한 학생들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안전지킴이 운동본부와 함께한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안전 지킴이 리더십 체험캠프'로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조기에 함양함으로써 불시의 사고에 대한 자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곽지역 학교를 우선적으로 발굴·선정해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역 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학생, 교사 등 200여 명과 포항 북부소방서, 포항북부경찰서,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량 불 끄기 체험, 금연홍보관,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

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과 VR 장비 및 체험모형, 소방자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이 진행됐다.

최진 안전 지킴이 운동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어릴 때 안전교육이 평생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책으로 안전 사고 대응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체험형 교육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 습관을 형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오는 25일 대형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실전 대응역량 강화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학교 주변 공사 팬 시, 사업지, 학교, 학부모 등의 안전대책협의체 가동 추진”

## 13일 기흥구와 처인구 학교 학부모와 간담회 갖고 교육방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17곳의 중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만나 용인의 교육환경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과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들과의 만남은 이날로 다섯 번째다. 약 2시간 30분의 긴 시간 동안 학부모들은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많은 주문을 했고, 의견을 경청한 이상일 시장은 학교별 요청사항에 일일이 답변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185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며 “학부모님들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관점,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내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교 낡은 시설 개선 방안이었다.

학부모들은 냉난방 기기의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부터 체육시설과 운동장, 교실 증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어정중학교 학부모 대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 기기의 교체 의견을 제시했지만, 내구연한과 예산의 제약으로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내구연한에 대한 맞춤형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예산 집행과 시설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 어디에서든 그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여름이 갈수록 무더워지는 상황에서 냉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면서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냉난방기 교체시기의 유연성 발휘, 고장날 경우에 대비해 수리 예산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들의 학생과 교사 수급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들이 교환됐다.

원삼중학교 학부모 대표는 “소규모 학교인 원삼중학교는 용인시측구센터 소속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학업을 유지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선과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사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고,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보다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원삼중의 고충을 이해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향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영향으로 인구와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테니 시와 교육지원청이 교사 수급이나 교육 프로그램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인근에 조성되는 시설에 대해 용인특례시와 학교, 경찰, 공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영문중학교 학부모 대표는 “학교 주변에 공사가 진행된 시설에 대해 공사 진행이 확정된 후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기 어렵다”며 “공사 전 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학교 주변에 공사가 이뤄질 때 시가 사업자,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학부모 등과 함께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챙기며, 공사계획 등을 알리는 시스템이 매 뉴얼처럼 작동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파란불 신호에서 대로를 건너다 신호를 무시한 승용차에 치여 수술을 세 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학교에서는 과밀학급과 학생수급 문제를 제기했고, 흥덕중학교는 학교 맞은편 쓰레기 집하장

의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신설 계획을 설명하면서 과밀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고, 쓰레기 집하장 문제에 대해서는 약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겠다고 답했다.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해달라는 요청과 운동장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희망하는 5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소개하고, 학교가 인조 잔디 운동장을 원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 대표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직접 각 학교 학부모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일일이 의견을 경청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이 개선되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 대표는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기에 시장은 인사만 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시장이 끝까지 남아서 의견을 듣고 답변해서 달리 봤다”며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185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오지 않은 학교별 문제, 사정 등을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많이 알게 됐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당사자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답답하고 한편으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내년에도 넓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찾으려 한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지역 내 185개 초중고 교장과 여섯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던 이상일 시장은 지난 9월부터 185개 초중고 학부모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13일까지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회장들과 다섯 차례의 만남을 가졌으며, 17일에는 용인지역 각 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UNESCO Korea in Korea

경북 세계유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핵심과제

**외연확장**  
기아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역),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길 건립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자료길, 하회천 퀘인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러닝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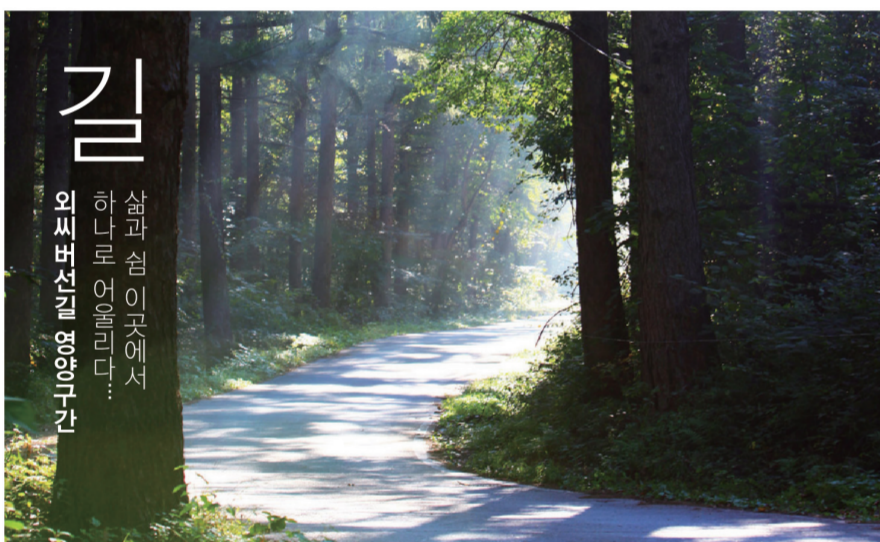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 영양 들어다보시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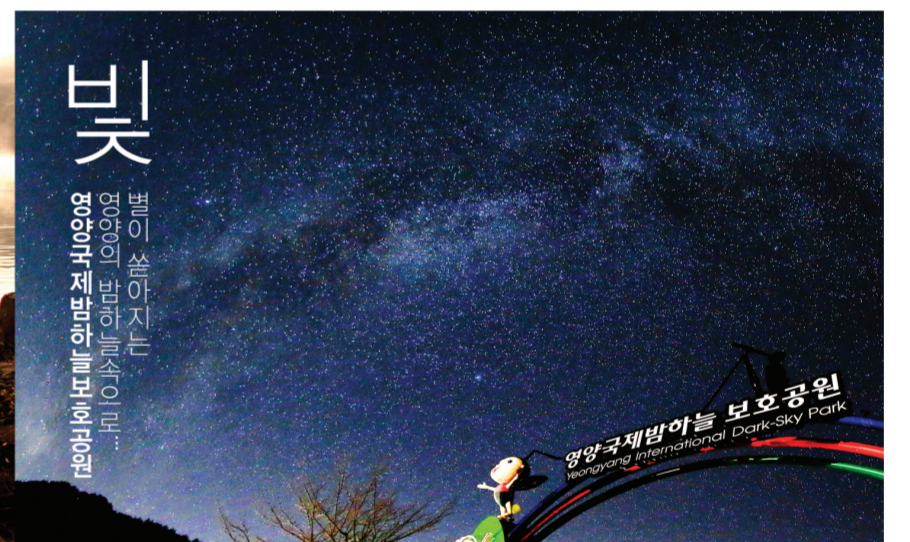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양나들이



## 물

영양의 향과 맛  
이름과 어울려...  
영양이 담긴 물



##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반짝이는 밤...  
영양이 빛나는 밤



##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이 담긴 물



##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 역사정



##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